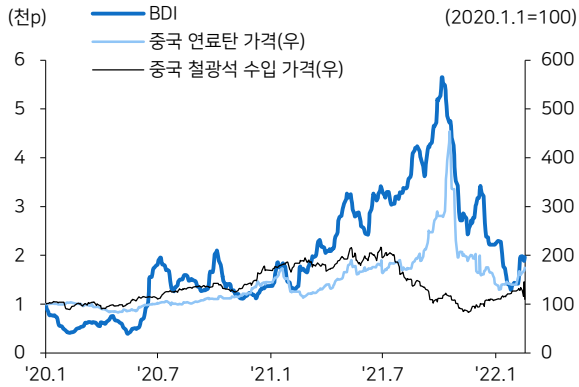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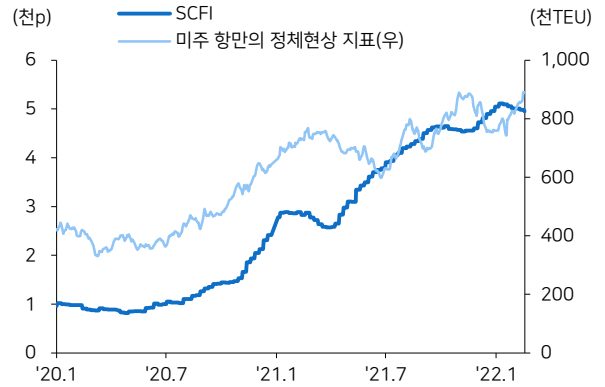


국내의 주요 지표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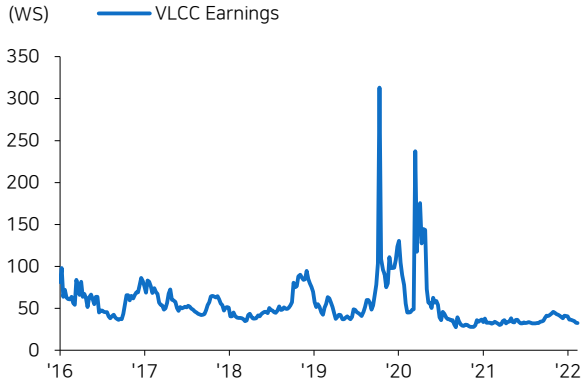
건화물운임(BDI) 1,964.0p(+78.0p Do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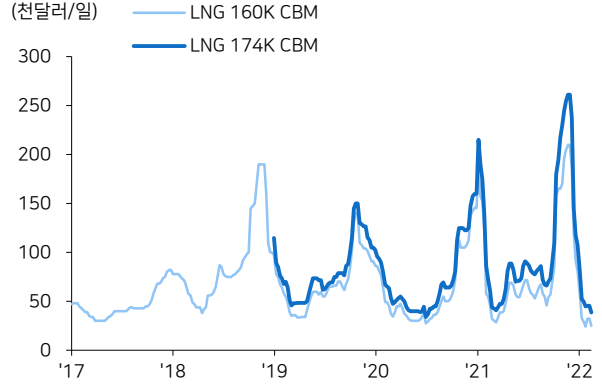
컨테이너운임(SCFI) 4,946.0(-34.9p W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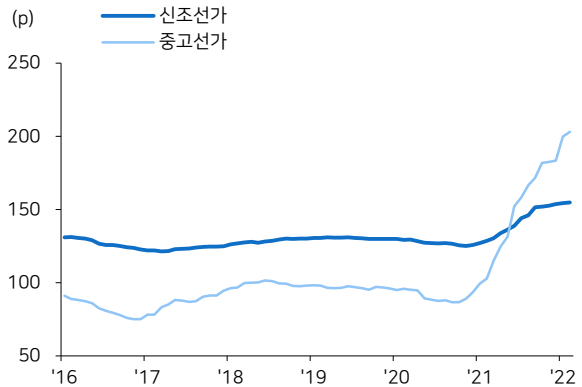
VLCC Spot Rate 31.6(-0.8p WoW)



LNG Spot 운임 25.0p(-7.5p WoW) 38.8p(-6.8p WoW)



신조선가 및 중고선가 154.7p(-0.2p WoW) 203.0p(+3.0p WoW)



항공시장 지표 310.0p(-2.8p DoD) 109.3p(+1.3p DoD)



자료: Clarksons, Bloomberg,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

영국 완전한 워드코로나...확진자도 자가격리 폐지한다

영국 총리는 월요일(21일) '코로나19 공존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보도됨. 지난 2년간의 바이러스 분석을 통해 '워드 코로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단계에 들어섰으며, 모든 전염병 규제책을 현행 방역법안의 만료 예정일인 3월 24일보다 일찍 끝낼 수 있다고 설명함. 한편, 영국은 지난 1월 27일부터 마스크 착용의무화와 실내시설 백신패스를 폐지한 바 있음. (중앙일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종료 앞둔 항공사들...연장 여부에 '촉각'

2월말 정부의 항공업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종료될 예정으로 보도됨. 고용부는 이르면 이번 주 항공사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으로 보도됨. 원칙적으로는 3년 연속 고용유지지원금 혜택이 제한되어 LCC는 2월까지만 받을 수 있음. (한국경제)

유조선도 유조선 나름

브로커들은 유조선이 심한 적자 운항을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대형 탱커 선사들은 운임이 개선되고 있다고 말한다고 보도됨. Frontline CEO에 따르면 Baltic Exchange의 운임 집계 방식의 문제로, 시장 실적인 아닌 구식 방법론에 입각되어 있다고 비난함. 신형 탱커와 구형탱커는 운항방식이 다르며 신형 탱커의 경제성은 스크러버를 장착할 경우 더 크다고 설명함. (선박뉴스)

US Gulf routes the 'highlight of the week', boosting MR rates

Baltic Exchange의 MR탱커 대서양 항로운임이 지난 10일간 두 배 이상 상승해 금요일(18일) 기준 15,658달러/일을 기록했다고 보도됨. 그 중 미국 걸프만-영국/유럽 항로가 23.2WS 상승하여 121WS을 기록해 큰 상승폭에 기여했다고 보도됨. (Tradewinds)

Newbuilding need: GTT says over 90 LNG carriers required for under-construction projects

GTT에 따르면 신규 LNG 프로젝트를 위해 신조 LNG 운반선 91척이 필요하다고 보도됨. 장기계획으로는 향후 10년간 330-360척의 LNG운반선을 계약할 것으로 언급함. GTT는 FSRU 10척도 발주가 예상된다고 언급함. (Tradewinds)

Offshore wind faces growing competition for vessels from resurgent oil and gas market

해상풍력시장에서 원유 및 가스 시장이 회복하며 CSOV(시운전 서비스 운영 선박)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COVID-19로 2020년초 시장 회복세가 주춤했지만, 2021년 북해에서 CSOV 활용률이 높아졌다고 언급됨. 2022년에는 공급부족 문제가 더욱 가시화될 것으로 보도됨. (Tradewinds)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